

1월2일(월)/히11:1~12(1)

제목: 믿음의 도 (1)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믿고 있는바가 언젠가 자기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라고 했다. 믿음이 이만큼 위대하고 중요하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크리스찬은 현재보다 미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실을 더 믿는다. 현실의 쾌락, 이익,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을 어리석게 본다. “왜 불안정하고 알길조차 없는 미래를 믿는가?” 이에 대해 크리스찬은 “장래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된다. 크리스찬은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행동한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반열 위에 세우셨다(2절). 믿음은 바람과 소망하는 바가 언젠가 자기 앞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는 복이 주어진다.

1월3일(화)/히11:1~12(2)

제목: 믿음의 도 (2)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6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 따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며 이 우주 안에 거주하는 인류의 안전만을 위해서 일하실 뿐이지 인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서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성서는 하나님은 우주와 관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 개인 개인에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개인 개인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개인적인 깊은 친분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무한한 보답을 하신다.

1월4일(수)/히11:1~12(3)

제목: 믿음의 도 (3)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한 예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 했지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8절). 아브라함은 타국에서 장막같은 곳에서 나그네처럼 거하며 기득권을 포기한 생을 살았지만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새로이 건설하실 도시를 바라보았다(9~10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가족이나 재산이나 기득권을 다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모험을 강행했다. 신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도 그 신앙 한 통이에는 소심함이 항상 남아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혹시 손해를 보거나 이상한 환경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의심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과감히 그 쪽으로 몸을 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모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크리스찬은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러면 그 걸음은 기적을 창출하는 창조적인 걸음이 된다.

1월5일(목)/히11:1~12(4)

제목: 믿음의 도 (4)

히브리서 기자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예를 들고 있다.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음 속으로 웃었다(창18:12). 왜냐하면 그 약속이 지나치리만큼 황홀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1절). 즉,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이다(11절). 그리고 그는 임신할 능력을 얻었고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그에게서 태어나게 되었다(12절). 사라는 그 불신 후에 하나님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급기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그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은 크리스찬 안에 한 점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 생각이 마음에 찍힌다면 가능한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1월6일(금)/히11:13~16

제목: 건너편을 바라보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외국인과 나그네 신세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13절). 그들은 자기 고향만 생각했었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더 나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살았다(15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마침내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16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저 건너편 세계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권태기도 오고 피로도 온다. 그러나 그 권태기를 이기고 다시 전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건너편에 있는 저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다. 저 세상이 너무나 황홀하고 매력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잠시의 피로를 잊고 다시 전진 할 수 있다. 크리스찬은 저 건너편 세상에 있는 그 값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로가 오고 권태기가 올 수 있지만 그 곳에서 자기 몸만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일시적인 권태기를 이기고 다시 저 건너편 세상에 끌리어 그곳으로 다시 발길을 옮기는 자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